

2005. 1. 5
한국은행 정책기획국

연합인포맥스의 1월 4일자 “한은 적립금 자의적 운용,
통화정책 왜곡 초래” 보도에 관하여

— 연합인포맥스는 1월 4일 기사에서 KDI 정책연구(제26권 제2호)에 게재된 “중앙은행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공공선택이론적 연구”(숭실대 교수 김인배 외 2인)자료를 인용, ① 한국은행의 적립금이 본래 목적과는 달리 통화정책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, 혹은 다른 정치적 목적의 각종 대출로 이어져 왔고 ② 한국은행의 적립금이 정부에 납부된다 해도 반드시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보도를 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과 다름

□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대출제도운용과는 관련이 없음

- 한국은행의 적립금은 통화신용정책 수행 및 외화자산 운용 결과 발생한 이익금의 일부를 적립한 것임
- 적립금은 한은법 제100조 등에 의해 손실보전 및 농어가기금 출연 등으로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대출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음

- 한국은행 대출제도는 통화신용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중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음
 - 한국은행은 최종대부자로서 금융시장의 안정유지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도모를 위해 유동성조절대출, 총액한도대출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제도를 운용
 - 동 대출제도는 한은법 제3조 및 제5조 등에 의해 중립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음

- 한편 한국은행 이익금이 내부 적립되지 않고 정부세입으로 납부되면 일반적으로 통화증발 압력으로 작용하게 됨
 - 정부가 한국은행이 납입한 이익금을 재정지출로 사용하지 않고 정부예금에 그대로 둘 경우에는 통화증발 압력이 없음
 - 그러나 정부는 한국은행 이익금 납입액을 재정지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통화증발 압력으로 나타남

문의처 : 정책기획국 정책조사팀 나상욱(☎ 4099)